자동 번역의 오류를 문맥 단위로 검토하는 법

똑똑 · 에디터 모아 · 발행 2026.10.06

낱말 하나만 바꿔도 문장 전체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확인하며 번역을 고칩니다.

똑똑 자체 작성 해설. 글 속 인물·수치·문장은 가상 학습 예시이며 실제 조사나 작품 결과가 아닙니다.

쉬운 설명

번역된 문장이 매끄러워도 빠진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앞뒤 문장과 원문을 함께 보고, 누가 행동해야 하는지 확인해요.

핵심

- 원문과 번역문을 문장 단위로 나란히 봅니다.
- 부정·조건·주체·대상을 우선 검토합니다.
- 불확실한 표현과 검토 범위를 기록합니다.

읽는 단위 · 단어가 아니라 요청의 구조

자동 번역에서 낱말은 맞아도 행동의 주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학교 안내문에서 누가 서류를 내야 하는지 잘못 옮기면 독자는 실제 행동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첫 검토에서는 문장의 주어, 행동, 대상, 조건, 기한을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앞뒤 문장을 읽어 그 말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European Commission은 웹사이트의 자동 번역이 사람의 개입 없이 생성되고 품질이 글과 언어쌍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매끄러운 문장만으로 검증이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번역의 목적이 대략적인 이해인지 실제 제출 안내인지에 따라 필요한 검토 수준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안내라면 원문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상 안내문 · 조건절 하나가 빠지면

가상 사례: 영어 원문은 “If you cannot attend, email the form by Friday.”입니다. 자동 번역 초안은 “참석할 수 있다면 금요일까지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세요”라고 나왔습니다. 영어의 cannot이 반대로 옮겨져 신청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친구가 자연스럽게 읽힌다고 해도 실제 안내로 배포하면 참석 가능한 사람에게 잘못된 행동을 요청하게 됩니다.

올바른 학습용 수정은 “참석할 수 없다면 금요일까지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세요”입니다. 여기서 Friday가 어느 날짜인지는 원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의 날짜와 시간대를 별도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실존 학교의 안내가 아닌 가상 예시입니다.

검토 항목	원문	초안의 문제
조건	cannot attend	can attend로 반전
행동	email the form	이메일 제출은 유지
기한	by Friday	실제 날짜 확인 필요

가상 번역 예시입니다. 실제 공지 배포 전에 담당자의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순서 · 원문 → 초안 → 수정 이유

먼저 원문을 문장 단위로 나누되 제목과 앞뒤 문단을 함께 보존합니다. 초안에서 숫자·날짜·부정·조건·고유명사를 강조합니다. 바꾼 부분에는 “cannot을 놓쳐 조건이 뒤집힘”처럼 이유를 짧게 씁니다. 단순히 더 자연스럽게 고쳤다는 말보다 의미가 어떻게 복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의 번역 지식센터는 기계 번역 후 검토를 가벼운 교정과 더 완전한 검토 수준으로 구분합니다. 교실 실습에서는 공개 용도와 오해의 비용을 생각해 검토 범위를 정합니다. 빠르게 내용을 파악할 때는 핵심 문장에 집중할 수 있지만 행동을 요구하는 안내문은 관련 문장 전체와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를 맡을 언어 능력이 부족하면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문맥과 문화 · 직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표현

공손한 요청은 언어마다 직접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Could you…”는 가능 여부를 묻는 표면 형태지만 상황에 따라 정중한 요청입니다. 문맥을 보지 않고 “할 수 있나요?”라고만 옮기면 안내문의 행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한 명령으로 고치면 원문의 관계와 어조가 달라집니다.

UNESCO의 AI 윤리 권고는 자동 번역 같은 자연어 처리 기술이 언어 표현의 뉘앙스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살피도록 합니다. 이는 특정 문장에 유일한 정답 번역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달 목적, 독자, 말하는 사람의 관계를 비교해 선택 이유를 설명하라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말을 번역할 때는 화자의 의도를 단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맥락을 남깁니다.

반례 · 기계 번역이 항상 틀리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물건 이름이나 공개된 정형 안내는 초안이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문장까지 확인 없이 배포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부정 표현 하나가 빠지면 전체 행동 지시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오류가 없던 문장은 그대로 두되 왜 맞다고 판단했는지 원문과 대조합니다.

번역을 고치는 과정에서 원문의 애매함을 임의로 해소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Friday”의 실제 날짜가 안 적혀 있다면 날짜를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원문 작성자에게 묻거나 “날짜 확인 필요”라고 표시합니다. 검토표의 미확인 칸은 부끄러운 빈칸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을 막는 장치입니다.

완성본 · 수정 문장과 확인 기록을 함께

가상 안내문을 고친 뒤 “조건절의 부정을 복구함. 실제 금요일 날짜는 행사 일정에서 확인 필요”라고 적습니다. 원문과 수정본을 나란히 두면 누가 보아도 변경 이유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검토했다면 최종 결정을 누가 했는지도 남깁니다. 중요 정보는 번역문만 보지 않고 원문 담당자의 승인된 공지를 확인합니다.

이 방법은 번역기를 쓰지 말라는 규칙이 아닙니다. 도구가 만든 초안을 비교 가능한 자료로 다루는 방법입니다. 모르는 언어의 표현을 자신 있게 재작성하기보다 질문 목록을 만드는 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분리하는 습관이 좋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활동지 보강 · 번역 수정 이유를 남기는 네 칸

원문 “If you cannot attend, email the form by Friday.”와 가상 자동 번역 초안을 한 줄에 놓습니다. 수정 전후 문장만 적으면 왜 바꿨는지 나중에 알기 어렵습니다. 원문 표현·수정문·수정 이유·남는 확인을 다른 칸에 기록합니다.

European Commission의 번역 사전 점검표는 빠진 내용과 용어 일관성, 수정·검토의 분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아래 표는 그 원칙을 교실의 가상 안내문에 맞게 똑똑이 새로 만든 기록 형식입니다. 실제 공지라면 원문 담당자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초안	수정문	수정 이유	남는 확인
cannot attend → 참석할 수 있다면	참석할 수 없다면	부정이 빠져 제출 대상이 반대로 됨	원문 담당자에게 수신 대상을 확인
by Friday →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요일 표현은 유지	행사 일정의 실제 날짜·시간대 확인

모두 가상의 학교 안내문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날짜를 임의로 넣지 않습니다.

직접 생각해 보기

가상 번역 초안의 cannot attend 오류를 네 칸 수정 기록표에 적으세요. 원문·수정문·바꾼 이유·아직 확인할 사실을 분리합니다.

확인 설명

cannot attend → “참석할 수 없다면”; 이유는 부정 누락으로 제출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Friday의 실제 날짜와 시간대는 원문 담당자의 행사 일정에서 확인합니다.

번역이 자연스러우면 정확한가요?

아닙니다. 가상 사례처럼 부정과 조건이 바뀌어도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습니다.

원문 언어를 잘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검토 가능한 숫자·고유명사·원문 구조를 표시하고 중요한 공지는 원문 담당자나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수정 기록표에서 빈칸을 남겨도 되나요?

네.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날짜나 화자의 의도는 추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원문과 출처

• European Commission · Use of machine translation on Europa — https://commission.europa.eu/languages-our-websites/use-machine-translation-europa_en: Quality and accuracy: 자동 번역은 사람의 검토가 없으며 품질이 언어쌍·문서에 따라 달라짐.

• European Commission · Revision and post-editing — https://knowledge-centre-translation-interpretation.ec.europa.eu/en/content/revision-and-post-editing: Light/full post-editing: 기계 번역 후 사람의 검토 수준을 구분함.

• UNESCO ·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artificial-intelligence: Policy area on culture / NLP: 자동 번역이 언어의 뉘앙스에 미칠 영향을 살피도록 권고함.

• European Commission · Pre-delivery checklist — https://knowledge-centre-translation-interpretation.ec.europa.eu/sites/default/files/ckeditor5-files/predelivery_checklist_en.pdf: 누락·용어 일관성·제2 검토를 확인했고, 참고자료와 달리 옮긴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정당화하도록 한 항목 9의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 https://www.dokdok.co/about#editorial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reading/translation-context-review